

사회



5.18 민주화운동 31주기를 앞두고 광주 북구 운동동 국립 5·18민주묘지에는 전국에서 찾아든 참배객들로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16일 오후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과 신자들이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5·18 31주년...뜨거운 광주 '값진 희생' 전국서 추모

'5·18 민주항쟁 31주년 기념행사'를 이틀 앞둔 16일 국립 5·18 민주묘지에는 5월 영령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물러든 참배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특히 5월 영령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객들의 열기는 80년 5월 만큼이나 뜨거웠다. 16일 국립 5·18 민주묘지관리소에 따르면 이날 광주시 북구 운동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는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와 박준영 전남도지사, 임승택 전남지방경찰청장, 이금형 광주지방경찰청장직무대리 등 정치인·공무원·학생·시민·외국인 등 1만4000명의 참배객들이 찾았다. 5월들어 이날까지 누적 참배객 수는 12만여명이다.

참배객들은 국립 5·18 민주묘지 내 추모탑에서 헌화·분향한 뒤 묘역 곳곳을 둘러보며 5월 희생자들

의 넋을 위로했다. 참배객들은 특히 5·18 체험학습관·추모관·유영봉안소 등을 방문. 5·18의 역사적 의미와 진실 등을 보고 배우며 민주주의 소중함을 몸소 체험했다. 국립 5·18 민주묘지 정문과 민주묘지 문 앞 광장 나무에는 참배객들의 소망과 염원이 담긴 1000여 개의 빨강·노랑·흰색 추모리본이 나부꼈다. 추모리본 코너는 5·18 민주항쟁 31주년 기념행사의 모토인 '30+1'을 바라는 추모객들의 희망과 염원을 담기 위해 설치됐다. 참배객들은 '값진 희생에 보답하면서 살겠습니다', '5월 영령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 가겠습니다' 등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정에 큰 획을 그은 5월 항쟁의 의미를 되새기

경찰 '3색 신호등' 전면폐지

광주·전남 3곳 즉시 철거

경찰이 운전자에게 혼란을 준다는 지적을 받은 '3색 신호등'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16일 연 기자회견에서 "3색 화살표 신호등을 확대 설치하는 계획을 보류한 뒤 시간을 갖고 재검토하겠다"며 "현재 시행 중인 시범 운영도 중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광주와 전남지역에 설치된 3색 신호등은 광주시 광산구 산월동 보훈병원 앞 사거리와 순천시 풍덕동 정원박람회 입구 3거리, 나주시 세지면 배산 3거리 등 3곳이다. 조 청장은 "국민의 거부감이 상당한 것 같다. 지난 13일 개최한 공청회보다 더 좋은 홍보환경은 없었는데, 여전히 반대하는 사람이 절반이고 현재 진행 중인 포털사이트 여론조사에서도 90% 가까이 반대하는 실정"이

라고 말했다. 조 청장은 특히 "좋은 정책이지만 초기 홍보가 제대로 안 됐다"며 "많은 국민이 선의의견을 품고 있어 극복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에 더는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 청장은 보류 기간을 묻자 "무기한"이라고 답변하며 "사고도 줄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제도인데 홍보 부족 때문에 접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퍼져 절대다수가 찬성하면 보류 기간이 짧아질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경찰이 2년간 준비한 3색 화살표 신호등 정책을 변경하는 것은 경찰 행정의 신뢰성에 흠이 될 수도 있지만 겸허히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시행 보류에 따른 비난은 경찰이 감수할 수밖에 없고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밝혔다. /이종행기자 golee@연합뉴스

원인불명 폐렴...5년간 472명 숨져

최근 논란 '급성 간질성 폐렴' 사망률은 42%

최근 '미확인 폐렴'에 의한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이 질환의 실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이와 유사한 '원인불명(특발성) 간질성 폐렴'으로 2003~2007년(5년) 사이에만 472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으로 치면 약 94명꼴로 숨진 셈이다. 특히 산모 사망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급성 간질성 폐렴'의 사망률은 42%로 치명적 수준으로 파악됐다. 이는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미확인 폐렴'이 이미 국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이들 질환의 원인을 밝혀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연구가 시급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16일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학술위원회에 따르면 2003년 1월부터 2007년 12월 사이에 전국의 병원에서 원인불명의 '특발성 간질성 폐렴(IIP)'으로 진단받은 환자 2천186명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한 결과 이중 472명(21.5%)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역학조사는 간질성 폐질환의 실태를 밝히기 위해 국내에서 처음 이뤄진 것으로, 관련 논문은 2009년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지에 발표됐다. /연합뉴스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28분 해질 19시 30분 달돋이 19시 30분 달질 04시 50분

안전운전 오전에 곳에 따라 안개 끼는 곳이 있겠다

광주	맑음	10/25℃
목포	맑음	11/23℃
여수	맑음	14/23℃
나주	맑음	7/25℃
완도	맑음	11/23℃
구례	맑음	7/26℃
해남	맑음	7/24℃
장흥	맑음	7/24℃
순천	맑음	10/26℃
영광	맑음	5/23℃
진도	맑음	8/23℃
전주	맑음	8/24℃
군산	맑음	10/22℃
남원	맑음	5/24℃
옥산도	맑음	10/18℃

지외선지수 식중독지수 꽃가루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0.5m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0.5~1.0m 1.0~1.5m
 (오후)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1.0m 목포 01:45 07:05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0.5~1.0m 여수 08:38 02:39
 1.0~1.5m 21:20 14:38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씨	18(수)	19(목)	20(금)	21(토)	22(일)	23(월)
최저/최고	13/26	16/26	16/27	16/26	15/24	15/23

수치여사 "5·18은 21세기 민주발전에 큰 영향"

광주인권상 축하 메시지

미얀마 민주화 운동 지도자 아웅산 수치(사진) 여사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31주년을 맞아 열리는 제5회 광주인권상 시상식에 축하 영상 메시지를 보내왔다. 5·18기념재단은 수치 여사가 인권상 시상식 수상자들에게 전하는 축하 영상 메시지를 인터넷을 통

해 보내왔다고 16일 밝혔다. 수치 여사는 3분30초짜리 이 메시지에서 "광주인권상 시상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지난 2004년 인권상을 준 것에 대해서도 고맙다"는 뜻을 전했다. 수치 여사는 또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은 아시아 민주주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면서 5·18의 정신과 가치를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시아 최대 인권상으로 자리잡아가는 광주인권상의 올해 수상자로 인도의 인권운동가 비나센(Binayak Sen)이 선정됐으며 시상식은 오는 18일 오후 5시 광주 서구 삼촌동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인권평화재단, 해외단체에 1억 지원

광주인권평화재단(이사장 김희중 대주교)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31주년을 맞아 해외 민주·인권단체에 1억원(9만달러)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 단체로는 미얀마 난민 단체, 스리랑카 전쟁 피해 여성 그룹 등이 선정되었으며 태국 치안마이의 소수민족 여성 역량강화 프로그램, 네팔 불가촉천민·여성의 평등한 기회 강화 프로그램도 포함됐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지난해 5·18 30주년을 기해 설립된 광주인권평화재단은 올해부터 해외 민주·인권·평화 단체를 공모를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인권평화재단은 지난 2월 25명의 봉사단(단장 김재학 신부)을 미얀마 난민촌에 파견 의료봉사와 교육봉사를 실시했으며, 올해 11월에는 2차 봉사단 파견을 계획하고 있다. 문의 062-234-2737.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송광사·백양사 일제히 하안거
 순천 송광사, 장성 백양사 총림선원 등 전국 100여 개 선원에서 2200여 명의 스님들이 17일(음력 4월 보름)부터 일제히 하안거(夏安居)에 들어간다. 하안거 결제(結制·시작)를 앞두고 대한불교 조계종의 정경(正經어른)인 법전 대종사가 16일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은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던지며 하안거를 알렸다. 법전 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중국의 선승) 조산본적(曹山本寂) 선사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물건을 '죽은 고양이 두개골(死猫兒頭)'이라고 했다"면서 "더럽고 쓸모없는 흉물을 어깨 가장 비싸다고 하는 것이지, 구수름(九畝) 하안거 동안 죽음을 각오하고 공구하면서 이 의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화두를 참구할 것"을 당부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국립공원의 아생화
 소개 허 모양 보라색 꽃송이 독특
 (19) 소개나물
 소개나물은 30cm정도로 자라는 풀꽃과 여러해살이풀이다. 5~6월에 줄기와 잎이 달린 그 겨드랑이에서 보라색 톱밥이 무리지어 핀다. 소개나물의 이름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꽃송이가 약간 벌어져 허를 내밀고 있는 모습이 소개와 닮아서라고 한다. 이름에 '나물'이라고 붙은 식물들은 나물로 먹는 경우가 많은데, 독성을 가지고 있어 나물로 잘 먹지 않는다. (박성배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 과장)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10214-중-21551 광고

나이가 들수록 생기는 안검의 노화 현상인 안검 피부의 처짐, 하수 및 외안각부의 잔주름 등은 피할수 없는 자연 현상이다. 또 안와지방이 불거져 나오면 이른바 축 늘어진 안검 변형이 생긴다. 또 기능적으로 안검열이 내려와 시야가 좁아지고 거근 근막의 약화로 안검하수를 초래할수 있으며 노인성 안검외반증 같은 증상을 일으킬수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변화들을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교정하는 수술을 안검 성형술이라고 한다. 수술후 미용적인 교정뿐만 아니라 축 쳐진 눈꺼풀로 인한 시야장애를 개선시켜 줌으로서 기능적으로 좋은 효과를 거둘수 있다. 특히 남성의 상안검 성형술은 상안검의 기능적인 문제 즉 안검하수, 시야장애, 눈꺼풀하수 등을 해결하기 위해 수술을 원한다. 수술전 검사로는 먼저 시력을 체크하고 안구돌출, 안구운동, 각막이상 등의 안구의 이상유무를 먼저 검사해야 하며 유루누선이나 누소관, 누점등의 이상 등의 누관계통 이상이나 안륜근의 이상, 눈썹의 이상, 하수의 유무, 안검 피부의 과잉도, 피부의 성상, 피부 병변의 유무, 좌우의차, 반흔의 유무등과 함께 안와 지방의 양과 돌출도, 돌출부위를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수술하면서 고려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1. 이마의 하수정도 2. 상안검과 하안검의 과도한 피부의 주름양과 정도 3. 양쪽 안검에서 돌출된 안와 지방의 양과 위치, 특히 상안검의 내측지방과 하안검의 외측지방. 수술은 쌍꺼풀선 없이 처진 피부만 제거하는 것과 쌍꺼풀선을 만들면서 처진 피부를 제거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대개 남성들은 쌍꺼풀선 없이 자연스러운 것을 원하고 있으며, 여자들은 쌍꺼풀선을 만들면서 피부 제거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동양인의 쌍꺼풀 높이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개 6~8mm 정도이며 10mm이상 넘지 않도록 도안 하는것이 좋다. 수술후 12~24시간은 약간 압박 하면서 얼음 주머니에 의한 냉찜질을 수술 부위 반상 출혈이나 부종을 감소 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세안은 7일정도 지나야 하며 눈화장도 7일 이후는 가능하지만 본격적인 화장은 2주후에 하는것이 좋다. 무엇보다 수술전 환자와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부작용으로는 상안검 피부와 과다하게 제거하면 상안검외반증이 생기며 양측 상안검 피부 제거를 다르게 하게되면 비대칭이되며 상안검 피부 제거한 부위가 염증이 오면 반응이 생긴다. (김영길 성형외과 원장)

김영길 성형외과의원
 ☎ 062-227-3777 무등극장 앞